

“멈추지 않는 전진, 전북경제 도약의 해로”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 취임 2주년

2026년, 전주상공회의소가 창립 9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 2024년 2월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정태 회장도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금리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주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둔 실질적 지원과 정책 건의 활동을 이어왔다. 김 회장은 “지난 2년은 하루처럼 짧고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라고 돌아봤다.

김 회장은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적수성연(積水成淵)”을 언급했다. 작은 물이 모여 깊은 연못을 이루듯, 지난 2년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 지역 기업과 함께 기반을 다지고 내실을 쌓는 시간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회장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힘 없이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취임 당시 약속했던 산업단지 활성화, 기업 경영지원 체계 강화, 정책개발 가능 확충 등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김 회장은 “완성이 아니라기보다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체계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2025년 한 해 동안 ‘실전형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세무·노무·법무·회계·관세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시켜 회원 기업

대상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통상임금 지침 개정과 고용노동·산업안전 정책 설명회도 열어 기업 현장의 혼선을 풀었다.

또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통해 총 74건의 정책 건의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23건의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제언집을 발간·전달했고, 이 중 14건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비수도권 기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전북·전남·경북·경남 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협의회 활동에도 적극 나섰으며, 국회 토론회에서 지역 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래 대응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전북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중소·중견기업의 ESG 진단과 컨설팅을 확대했고, ‘미래내일 일일업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이어졌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참가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장사무소 개소, 베트남 호치민 소비재 페어 참가 등 전북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넓혔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위문, 재난 피해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전주상공회의소는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올해 창립 90주



2026년, 전주상공회의소가 창립 9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 2024년 2월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정태 회장도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4대 비전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비전 실현에 협력하고,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지속 제시할 계획이다.

회원 중심 경영서비스도 강화한다.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복지플랫폼 운영, 실무 중심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규제·투자 애로를 상시 점검한다. 일자리 지원 협의회 운영과 시니어·청년 맞춤형 일일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제시했다. 달리는 말이 멈춤을 멈추지 않듯,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위기의 시기일수록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말보다 행동, 계획보다 실행으로 전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과 소상공인의 합심과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남원 출신 기업인으로 1980년 대림석유(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대한빙상경기연맹 실무 부회장, 전북대학교 기성회 회장,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2월 제25대 회장으로서 선출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오상근 기자

“오곡밥으로 건강한 정월대보름 보내요”

농촌진흥청, 생활습관병 예방·건강관리 도움 국산 곡물 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 기능 성분이 풍부한 국산 곡물 품종을 소개했다.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은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쌀, 콩, 수수, 팥 등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을 이웃과 나눠 먹는 날이다. 오곡밥은 전통 음식이지만,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꾸준히 섭취하면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곡밥은 찰쌀과 맷쌀, 수수, 검정콩, 팥, 녹두를 깨끗이 씻어 불린 뒤 함께 지어 만든다. 단단한 팥은 미리 삶아 사용하고, 삶은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밥을 지으면 감칠맛을 더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쌀과 잡곡의 비율은 7대 3이 적당하다. 완성된 밥에 참기름을 넣어 섞으면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며, 들기름에 볶은 나물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대표 품종으로 는 검정콩 ‘청자5호’, 팥 ‘홍다’, 수수 ‘고은쌀’, 녹두 ‘채훈’, 참깨 ‘슬기’, 들깨 ‘새찬’ 등이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원예조공법인 사업추진 전략회의 가져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24일 전북 원예농산물의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조공공사사업법인(조공법인)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 관내 14개 시군 원예조공법인 대표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소비시장과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북 원예농산물 50% 취급과 연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 ‘통합마케팅 2기’의 성공적 추진을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농심전심운동의 일환인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과 2026년 조공법인 사업 추진 계획, 정부의 산지유통 정책 방향, 생산·유통 통합조직 전환, 농업 스마트팜 보급 확대, 산지 온라인 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이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기상청, 빅데이터 융합·활용 개발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4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기상청(청장 이미선)과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정전과 전기설비 손상, 감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예측·예방 중심의 과학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기상·전기안전 데이터 공유 및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AI 기반 위험예측 및 사전점검 서비스 구현 △관련 정책 협력 및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국 전기설비 점검 이력과 사고 데이터를 기상청의 기상 빅데이터와 결합해 AI 기반 전기설비 위험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소상공인 육아안정 특례보증대출 시행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소상공인 육아안정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전북은행은 지역 내 출산·양육 가정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3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 83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브라질, 농업·K-푸드 분야 협력 강화

롤라 대통령 국민방문 계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방안 논의

루이스 이나시우 롤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의 국민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이 농업 및 K-푸드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카를투스 엔히키 바케타 파바루(Carlos Henrique Baqueta Favaro)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개정과 식량안보,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인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례화

된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

계·농약 등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해 K-농자재의 중남미 전역 진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과 관련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인 아젠시아 나시오나우 지 비질란시아 사니타리아, ANVISA(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의 심사 지원 문제를 공유하고 신속한 검토와 심사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농업과 건강 기능식품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